



반짝 추위에 비바람까지 몰아친 26일 밤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7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추위와 비바람을 가리려고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올리며 "박근혜 체포"를 외치고 있다.



동천마을에서
흑산도에서

전력량 배분 뒷거래 의혹 경찰, 한전 직원들 수사

전력량 배분 권한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송전선로 용량을 배당해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뒷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전 직원 수명이 태양광 송전선로 용량을 늘려주거나 배당받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부당하게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직원은 전력량 정보 독점을 이용해 일부 업자들에게만 전력 용량을 배분하는 특혜를 주고 수익금 일부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죽창 설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죽창을 설치한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보타선적 150t급 양양어선 철보어68589호(승선원 12명)와 철보어41128호(승선원 19명) 등 2척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5일 오전 8시10분께 신안군 거제도 남서쪽 102km 지점, 어업협정선 11km 안으로 들어와 각각 조기 등 잡어 4.8t과 1.1t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섬광포음탄 1발과 비살상용 다목적발사기(고무탄총)를 이용 고무탄 6발을 쏘면서 선원들을 제압했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광장서 타오른 촛불, 마을로 섬으로 방방곡곡 번진다

광주·전남 마을 공터·상점 앞 등서 소규모 시국대회 부모 손잡고 나온 초등생에 경로당 어르신까지 동참 최서남단 흑산도서도 주민 300여명 촛불집회 가져

도심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몰아치는 바람을 타고 마을로, 섬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 주말이면 타올랐던 촛불은 이제 마을 앞 조그만 공터, 도로가, 상점 앞으로 확산하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광장에서 바람을 타고 옮겨붙은 촛불은 마을로, 전남지역 섬마을로 들불처럼 번져나가 활활 타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27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서구 동천동 주민들은 지난 25일 오후 5시 마을 앞 퍼머스마켓(마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잘 짜인 각본 아래 도심 광장에서 열린 집회가 아니어서 미숙한 모습도 연출됐지만 130명의 주민들은 1시간20분 동안 끈기있게 행사를 이어갔다.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경로당 어르신 등이 저마다 준비해온 시국 발언을 낭독할 때마다 들고 있던 주민들은 촛불을 흔들며 서로 용기를 북돋았다.
촛불 포도존 인증 샷 찍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하야기' 퍼즐 맞추기, 배짱이 그림책(배짱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내용) 낭독하기 등 아기자기한 마을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네 촛불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30분 가량은 동천동 상가 주변을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외치기도 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마을 촛불집회가 열린 곳은 지난 23일 서구 유덕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3일 유덕동 버들주공아파트에서 오후 8시부터 40분가량 진행된 마을 집회에는 주민 80여명 참여했다. 주민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유행하는 '하야기'도 음악에 맞춰 따라불렀다. 촛불을 앞세우고 15분가량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미니 행진'도 벌였다.
24일 오후에는 북구 문흥동, 양산동 주민들이 촛불로 동네를 밝혔다. 도심 광장

광주 마을 촛불집회 보니
23일 유덕동 버들주공아파트
24일 문흥동·양산동 주민들
26일 광산구 월곡동 우체국
내달 1·2일도 미니집회 잇따라

과 규모를 비교하면 코웃음 나오는 집회 참가자 규모지만 문흥동 주민 40명은 SM마트에서, 양산동 주민 15명은 양산 호수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광산구 월곡동 주민들도 금남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26일 오후 월곡동 우체국에서 시국행사를 개최했다. 반짝 추위에 비바람까지 몰아쳐 참가자 수는 30명에 불과했지만, 주민들은 '박근혜

하야기'라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북구 양산동 주민들은 다음달 1일, 일곡동 주민들은 다음달 2일 각각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광주 곳곳에서 우리 마을도 촛불집회를 열자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도심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은 마을을 지나 섬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 최서남단 흑산도(신안)에서도 지난 26일 오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오른 것이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달려가야 도착하는 흑산도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흑산도 운동본부가 꾸려졌고, 흑산도에서 4km 떨어진 대둔도 주민들도 배를 타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도심 광장 못지 않게 열기가 뜨거웠다. 주민 300여명이 흑산도 예리 광장에 모여 진행한 촛불집회에선 박

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뜨거운 시국발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오용은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뿐만 아니라 전남의 소도시나 시골 마을, 섬마을에서도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서 "촛불로 전국이 뒤덮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도심 마을을 지나 농촌 마을로, 섬마을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광장 촛불집회, 마을 촛불집회 나아가 집집 마다 촛불을 들어올리고, 차량마다 퇴진 피켓을 부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진만 고니 사체서 AI 검출...인근 오리농가 전수조사

10km 내 닭·오리 이동제한
강진만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강진만 반경 10km 내 닭,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오리농가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진만에서 폐사한 고니 사체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26일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

들여 전남 세 번째 AI 확진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6일 해남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2000여마리가 폐사하고 지난 18일 무안 육용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뒤 AI 감염 사례가 없었다.
두 차례 AI 확진으로 닭과 오리 7만 4000마리를 살처분했지만 농장 감염사례와 달리 야생조류 AI에 따른 추가 살처분은 없었다. 전남도는 강진만에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닭은 7일 후 이상 증상이 없으면, 오리는 14일 후 정밀검사를 거쳐 추가 감염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행히 반경 500m 이내에는 수십마리만 집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km 이내 강진, 완도, 장흥 60농가에서 닭 78만7000마리, 10농가에서 오리 14만 8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전남도는 해당지역 내 오리를 일제 검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철새

도래지 인근, 최근 5년간 두 번 이상 AI 발생 지역, 오리류 밀집 사육 지역 등을 중점 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AI 감염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오리 242개, 거위 35개, 기러기 26개 등 모두 303농가다. 전남에서는 437농가에서 오리 69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무안, 해남 축산농가 주변 10km 내에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중점방역지역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시료 채취를 전담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농가·축사 동별 분변, 환경 시료 등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항원 검사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바자회서 행패 부린 만취 70대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바자회 가 진행 중이던 광주의 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지금 시국에 왜 떠드는가"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8)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5분께 북구 문흥동 북구청소년수련관 내 바자회장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며 행사를 방해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공익요원 구모(21)씨의 가슴까지 한 차례 때리는 등 한동안 말썽을 부렸다는 것.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나. 시국이 이 판국인데"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는 "소주 3병을 친구들과 나눠 마신 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상가건물</p>  <p>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p>	<p>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p> <p>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세차기 / 3기 6구</p> <p>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p> <p>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p>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p> <p>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p> <p>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